

# 중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브로커에 맡긴 당국

### 해경·서해어업관리단 등 공식 납부창구 이용 미흡 자격증 없는 통역사가 대납 브로커로 활동 말썽도

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되는 중국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금 대납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식 창구를 마련했지만 당국의 의지 및 홍보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 해경·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등은 한·중 양측이 협의해 마련한 공식 창구인 (사한국수산회)가 아닌, 무자격자인 담보금 브로커를 통역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대납 업무까지 맡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담보금 납부를 위한 공식 창구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로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자칫 양측 정부간 신뢰 문제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수산회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를 통해 공식 담보

금 업무 처리 창구로 합의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의 대납 업무 23건을 맡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의 경우 울머어 74척을 나포했지만 고작 5척에 대해서만 수산회를 거쳐 담보금 업무를 처리했다. 중국 정부가 담보금 대납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납 브로커들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식 창구가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도 비순해 울머어 51척을 나포했지만 공식 창구를 거쳐 담보금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고작 4건에 불과. 한국수산회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수산회의 역량 부족 등도 불법 담보금 브로커가 활동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식 창구이면서도 충분한 예치금(2억

5000만원)이나 통역 인력 등이 부족하다보니 스스로 담보금 업무처리를 포기하는가 하면, 새벽 시간 단속된 중국 어선들의 담보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해경과 해수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행태도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의 담보금 대납 업무를 봐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대납 브로커' 전모(여·44)씨를 구속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귀화한 뒤 2010년부터 통역자격증도 없이 목포해경·서해어업관리단 등을 오가며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한 통역 및 담보금 대납 업무를 보는 브로커로 활동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씨가 울머어 받아 챙긴 담보금 수수료만 한 달 평균 1000만원이 넘었다는 게 경찰 설명으로, 전씨는 중국 어선들과의 연락망을 구축, 이들 어선들이 나포되면 즉각 개입해 수년간 활동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단속 당국 조차 정부가 마련한 공식 창구가 아닌, 담보금 브로커를 통해 처리해 왔다는 말이 나온다.

전남경찰청과 수산회 등은 전씨가 1.5~2.5% 수준에 불과한 공식 창구를 통한 수수료보다 1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도 '유명 브로커'로 알려진 데는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 대납 업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정식 환전 과정 등을 거치는 것에 견주 빨리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우리측 해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매년 끊이지 않는 데다, 대행 업무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업자들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해경이 해체된 상황에 담보금 대납업자가 활동하는 육상범죄를 인지해도 수사에 착수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 경찰 성매매 업주에게도 돈 받았다

### 북부경찰 경위 조만간 소환 불법 단속 솜방망이 처벌도

현직 경찰관과 불법성인오락실 업주 간 유착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북부경찰 A경위에 대한 성매매 업주와 유착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조사가 착수했다.

또 행정당국의 어설픈 행정조치가 불법성인오락실 부흥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운 불법성인오락실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등 영업실태가 각 구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낱말이 드러났다.

◇경찰, 성매매 업주와 유착비리 의혹도 수사=경찰은 A경위가 단속 편의의 대가로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A경위 지인이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A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A경위 지인을 검거, 조사 중이다. A경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A경위 이외에도 범주인과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정황 및 경찰 뒷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불법성인오락실 업주 김모(51)씨 등 5명을 계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불충분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법성인오락실 성행 이유 있었네=광주일보가 이날 이번에 단속된 불법

성인오락실 6곳에 대한 각 구의 행정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불법성인오락실은 영업시간 외 영업·개입물이용대수 위반·불법환전·등록증 미제시·게임물분류 미등록 위반 등으로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3회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계업랜드는 2년7개월간 13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중 영업정지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 또는 과징금 25만~100만 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D계업랜드는 1년4개월간 5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한 차례와 50만~450만 원의 과징금을 낸 뒤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성인오락실 성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돈줄을 쥔 실제 업주들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영업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성인오락실 6곳 중 3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한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바지사장을 바꾸는 이유는 기층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계업랜드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영업등록을 하고 50만 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한 뒤 영업을 지속해왔다.

일각에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을 뿐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인건함은 물론 구청의 행정처분도 과징금 부과를 없애고 영업정지처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 학부모들 정취국 교육감과 '즉문즉답 100분 토론'

### 혁신학교·9시 등교 등 민감정책 논란 후끈 장교육감 일일이 답변하며 교육철학 설명

"혁신학교를 꺼리는 부모도 있다. 중학교 배정 때 이를 반영했으면 한다. 혁신중학교에는 원하는 학생을 배정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중학교로 배정했으면 한다."(초등 6학년 학부모)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탓에 인성·교육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선별적 급식으로 바뀌 예산을 교육사업으로 돌렸으면 한다."(고3 학부모)

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상무고등학교 대강당. 광주지역 학부모회 임원 대표 200여명이 정취국 교육감과 광주교육 현안을 놓고 '즉문즉답 100분 토론'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자유학기제, 자사고 폐지, 무상급식 등 광주교육정책의 민감한 정책과 사업들을 따져 물었다. 광주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토론은 100분을 넘겨 120분간 진행됐다.

광주 특성과 한 학부모는 "특성화고의 목표는 취업이다. 담당부서는 취업·진로부인데 80%가 기간제 교사다. 업체를 발굴하고 취업 유도해야 하는데 기간제여서 단절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따른 학력 하향 평준화 우려를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광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가 없다. 지역 단위 자사고만 있는데 굳이

없을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내년 1학년 2학기때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했다. 이들은 "지필고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 기대된다"며 "1학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선도 우려되므로 3학기 정도 시행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반면 중학교 학부모들은 반대했다. 한 중학교 학부모는 "취지는 좋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지필고사 한번 안본다고 행복한 학교가 되겠는가. 오히려 체험학습보고서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제언도 쏟아졌다.

한 학부모는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의 해법으로 여름방학을 대폭 줄이고, 겨울방학을 앞당겨 수업시수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 건강검진이 신체검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혈액검사를 추가하면 종종 발견되는 희귀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취국 교육감은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자신의 소신과 교육철학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된 사항은 광주교육청이 검토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양산재 쾌적하게 8일 광주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이 양산재 본촌 근린공원인 양산재에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꽃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도선사 징역 2년 선고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 도선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이산호 선장과 GS칼텍스 생산1공장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박재형 판사는 8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바다에 많은 기름을 유출하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여수도선사지

회 소속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선사의 주의 의무 소홀로 충돌 사고가 발생, 많은 기름이 유출돼 460여명이 구도와 등동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고 18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거리 승객이 택시기사에 야식 사준 이유? 금반지 '슬쩍'

○장거리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요금 25만 원과 함께 야식까지 사주는 등 택시기사에게 환심을 산 뒤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8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4시 대전시 유성구 H식당에서 개인택시기사 이모

(여·56)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손가방에 든 72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몰래 가져간 혐의.

○강씨는 광주에서 이씨의 택시를 탄 뒤 목적지인 대전에 도착해 택시요금을 준 뒤 "고생했다"며 야식을 사줬다고 제안했는데, 경찰에서 "호기심에 손가방을 열어본 것이지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 2015년 2월

- 유출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